

△▽△ 綜 說 △▽△

齒科疾患의 原因이 될 수 있는 心理的 要因

PSYCHOLOGICAL FACTORS AND ETIOLOGY OF DENTAL DISEASE

九 宜 齒 科 醫 院

金 潤 煥

I. 서 론

“齒科界” 75年 5月號 “치치전후 어린이와의 對話”라는 梁精康教授의 論文가운데 “齒科醫師가 다루는 대상이 어린이들의 齒牙가 아니라 齒牙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서……”라고 한 말이나 또 어느 의사가 “現代는 病을 治療하는 것이 아니라 患者를 治療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患者의 精神的 問題를 중요시 한 말이다.

人間은 機械와 다르기 때문에 人間の 病을 治療하는 것은 고장난 機械를 고치는 것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齒科醫師는 技工師가 아니다.

現代醫學의 發展에 따라 精神醫學도 일취월장하는 느낌이 며 이에 따라서 精神醫學을 齒醫學에 利用할 수 있는 可能性이 많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기술하여 보는 것이다.

齒科疾患의 原因이 될 수 있는 心理的 要因(Psychological factor)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局所的原因에 중점을 둔듯 한 느낌이다.

即 齒周疾患(Periodontal disease)의 原因 中에 overfunction under function이라든가 不定咬合(Malocclusion)의 原因中에 비정상적인 습관(Abnormal habits)이라든가 磨耗(Abrasion)가 칫솔을 잘 못 사용하여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原因이 생기기 以前에 그 原因이 생길 수 있는 心理的 原因이 있다고 본다. 即 그 와같은 原因이 생길 수 있는 力動的 동이 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clenching(이를 악물다). 이 Emotional tension으로 오는데 이 emotional tension은 그 患者에게 精神的인 어떤 問題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II. 기 초

한국사람들은 西歐人에 비하여 口腔的 性格인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韓國의 齒科醫師들은 口腔的 性格에 대한 精神醫學的 見解(Psychiatric conception)를 알아야 될 듯하여 韓東世教授(서울大學校醫科大學精神神經科)의 著書 “精神科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약술한다.

(I) 口腔期(oral stage): 어린 아이가 갓 나서부터 만 1~1.5세 까지를 말한다. 갓 낳은 아이는 음식에 대한 생물적 요구를 젖을 빠는 것으로써 만족시키며 젖을 먹어서 배고픔을 면할 뿐 더러 다른 여러가지의 복잡한 요구를 채운다. 그 뿐 아니라 고통을 더는 방법으로도 젖 아니면 손가락을 빨다 이렇게 이 時期의 갓난 아이의 活動의 대부분 生活의 거의 전부가 입과 입술 즉 口腔에 그 중심을 두고 있어서 口腔期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口腔期의 前期가 이렇게 受動的(reception)인데 비하여 그 後期는 攻擊的(Aggressive)이다. 8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갓난 아이는 젖을 빠는 것에 보태어 젖꼭지를 무는 쾌감을 맛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時期를 攻擊性(Aggression)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공격성은 젖 꼭지를 무는 것 뿐만 아니고 빠는 데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빠는 운동은 상당히 역센 힘으로 빠는 것이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젖꼭지를 물고만 있지는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이라고 하면 파괴적인 면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에너지의 活用, 決斷·精力등으로 표현되는 건설적인 면도 內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口腔期의 입은 쾌감을 주기 때문에 Eroticism을 일

오키는 區域(ergenous Zone)이라고 하며, 이런 구역에서 얻는 쾌감을 自己愛라고 한다. 자기에의 精神的發達段階는 물론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移行해 가야만 될 것이며, 이때에 어머니가 변덕스럽고 진진하지 못하게 갖난아이를 비하게 되면 손가락을 빨다든지, 手淫行爲를 한다든지 또는 便秘 등의 자기에의 연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반면에 진진하고 一定한 어머니의 태도는 자기에의 기간을 단축시키며 本능적 충동의昇華(Sublimation)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口腔性 性格: 만족을 주는 중심이 입에 머물러 있어서, 그 시기를 훨씬 넘어 있어야 할 나이에 이르러서까지 依存的이고, 貪慾의이고, 남에게 줄 줄은 모르고 얻기만 하는 집어삼킬 듯한 성격을 가르켜 口腔的이라고 한다.

(3) 공격심 aggression: 진진하고 원만한 성격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心因的인 요소로 요즈음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는 공격심이 있다. 공격심은 공격·반감·파괴의 意向과 성난 감정을 수반한 목표를 향한 自己主張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심의 조절을 배운다는 것이, 즉 공격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融화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도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사회단위가 맡은 큰 일이 될 것이다. 공격심이 꺾이지 않고 적절히 키워지면 攻撃的·進取的·精力的인 성격으로 발달될 것이요, 잘 익혀지지 않을 때에는 未熟한 반항적성격으로 될 것이다.

공격심은 육구의 충족이 방해받았거나 좌절되었을 때 거기서 생기는 감정때문에 惹起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목표 달성을 좌절시키는 힘이 너무 일찌기 또는 너무 가혹하게 또는 너무 강력하게 작용되면 공격적 성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未熟한 性格: 受動 攻撃的 性格(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受動 依存的인 型(Passive-dependent type)은 무기력하고 無爲徒食하는, 의존적인 어린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이는 성격을 말한다. 수동 공격형은 공격심이 고집·똥장부림·부정·비능률성 등의 수동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性格型을 말한다.

공격형은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파괴·짜증·화풀이로 반응하는 성격형을 말한다.

이상의 세 가지 세분된 형들은 서로가 代替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것이므로, 같은 한 사람일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III. 본 론

공격심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듯이 咀嚼壓에 의

하여 齒周疾患 또는 磨耗(Abrasion)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음식물을 咀嚼(mastication)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推理할 수 있다.

공격심이 강했을 때 bite force가 강해 진다거나 Bruxism이나 clenching이 생길 수 있으며 공격심을 정신발달상에 따른 조절에 실패하여 abnormal habits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또 수동공격형이 미숙한 성격으로 진단되는 정신의학에서의 疾患인 것과 같이 underfunction도 치과질환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동식으로 빨아서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씹지 않는 사람은 정신학적으로 수동형인 성격이 되는 것이다.

공격심은 어느 정도로 咀嚼壓(bite force)에 의하여 발산하는 것이 正常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精神·神經·身體이 세 가지가 가장 理想的으로 조화(harmonize)되어 무의식적으로 咀嚼하는 상태 即 本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좌절시키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 할 때나 또는 상대적으로 방어기전이 弱할 때 공격심이 생기고 이 공격심이 신체에 自虐的(sadium)인 작용을 할 때 精神身體障礙(Psychosomatic disorder)가 생긴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stress가 강했을 때, 또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strain이 弱했을 때, 即 stress의 強度가 stain의 強度를 넘었을 때 病이 날 수 있다.

이러할 때 주위 사람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하여 생긴 적개심을 직접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억압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bite force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산했다면 masseter muscle이 과잉발달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 할 수가 있다. 신체적 발달과정에 있는 아이가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다든지 또는 부모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로서는 어른들에게 대항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한 마음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 이 아이가 그 분한 마음을 잘 못 표현하면 그 상대로 부터 더 큰 공격을 받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연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단단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강한 bite force로써 씹는 것으로 억압된 감정을 이완 시키는 것이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예를들면 시어머니에게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말대꾸를 한 번도 할 수 없고 남편이 심정을 이해하여 해결해 주지 못하는 며느리가 공격적 성격에 口腔의 性格者였다면 bite force가 강하게 작용하여 Periodontal disease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정신적 문제가 생긴 연령 지속성 強度에 따라서 masseter muscle이 과잉발달한

다거나 alveolar bone의 Density가 높아진다거나 attrition이 생기거나 Bruxism, clenching, Abnormal biting habit와 같은 Abnormal habits가 생기거나 acute 또는 chronic periodontal disease가 생기는 것이다. Bite force가 약하게 지속적으로 overfunction이 되면 chronic bone resorption이 될 것이며 강하면서도 급격히 나타나면 traumatic occlusion에 의하여 acute periodontitis가 될 것이다. Gum을 즐겨 씹거나 땅콩 같은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口腔性 性格인 사람에게서 attrition을 발견하기는 쉬운 일이다. 외부환경의 spoldic stress에 abnormal habit이 생길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무안을 당했을 때, 손가락을 문다든가 많은 사람 앞에 나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주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긴 어떤 적개심을 발산 할 수 없어서 clenching이 생겼다가 bruxism이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bruxism이 原因이 되어 traumatic occlusion이 되었는지 traumatic occlusion이 原因이 되어 bruxism이 되었는지는 그 환자의 history를 잘 관찰하여 감별할 수 있을 것이다.

Bite force의 overfunction이 齒周組織의 strain을 넘어서 나타나는 齒周疾患은 acute 또는 chronic한 것이 그 환자의 Psychiatric history와 일치 함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齒科疾患의 原因이 될 수 있는 心理的 要因과 齒科疾患의 原因이 서로, 연령, 지속성, 強度에 따라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強迫的(compulsive)이고 自己攻撃의인 사람은 強迫的 tooth brushing에 의하여 abrasion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IV. 치 료

齒周疾患을 東洋醫學 即 漢醫學에서는 風齒라 하였는데 風이란 精神神經계통의 疾患을 의미하는 것으로 漢醫學에서는 局所的인 面보다 精神的인 面을 중요시 한 見解라고 본다. 따라서 東洋에서는 오래 전부터 局所的인 치료보다 精神的 面으로 치료나 또는 예방을 하였다고 본다. 이미 西歐의 現代精神分析學(Psychoanalysis)에서는 東洋哲學의 禪이나 道를 利用하고 있으므로 韓國의 齒科醫學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치료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본다. 東洋哲學을 利用한 精神分析學을 西歐에서 역수입 할 것이 아니고 직접 東洋哲學을 利用하여 齒科醫學을 發展시키는 것이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東洋哲學, 齒科醫學, 精神科, 精神分析學을 종합하여 치료·예방방법을 찾으면 理想的인 것으로 생각한다.

임상에서 가끔 患者가 拔齒을 거부하는 것을 보는데 이 患者가 공격심이 강한 사람으로, 咀嚼으로 적개심을 발산해 오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拔齒은 공격무기의 상실이라고 하는 좌절로 받아드려 질 지도 모르므로 補綴에 의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 정신요법(Psychotherapy)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 Bruxism에 의하여 traumatic occlusion이 생겼을 때 equilibration으로 premature contact은 없앨 수 있으나 bruxism이 제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Bruxism은 Psychological factor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정신요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abnormal habit가 있을 때 그 습관을 버리라고 하여 쉽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心理的으로 力動的 동기가 除去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力動的 동기를 제거 할 정신요법 또는 정신분석요법이 필요 할 것이다. 그 동기가 근래에 있었던 것이면 간단한 精神療法(Psychotherapy)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이며 그 동기가 오래된 것이라면 深部精神療法 내지 精神分析療法(Psychoanalysis)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요법을 쓰려면 정신의학적 理論을 理解하고 患者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치료에 임하여야 한다. 요즘은 술자의 인격을 중요시 하며 술자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억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며 따뜻하고 성의가 있고 理解心이 있고 적극적인 方法으로 환자를 도와 주어야 한다. 이러한 方法으로도 解結이 되지 않으면 정신과의사에게 consult 하여야 될 것이다.

V. 결 론

다음 표는 underfunction과 overfunction을 비교하여 연관되는 것을 적어 보았는데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항도 있을 지 모르겠다. 이 두가지 사항은 서로 가역적(reversible)으로 變하며 한 사람에게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혼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쪽에 극단적인 상태로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끌어드리 되 전체가 같이 움직여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지나치게 반대 쪽으로 움직여도 문제가 되므로 中庸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兩 극단으로 가역적(reversible)으로 움직이며 유동적인 것이다. 균형을 잡고 安定되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결손된 치아를 회복시켜 주어 공격무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정신요법이 될 수도 있다. 補綴을 전체로 한 拔齒이어야 하며 拔齒을 완강히 거부하는 환자는 補綴에 의하여 공격적 무기로서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환자 자신이 납득하여야 한다.

도표 1. Under function과 Overfunction의 비교

Underfunction	Overfunction
출생부터~生後 8個月 受動的 energy의 소비를 절약한다 依存的 고집, 늦장부림, 부정, 비능 률적 Bitee force가 弱하다 체격이 약하다 (musce hypotonie Bone density가 弱하다 담배를 피운다 유동식을 좋아한다 식사시간이 짧다 입을 해벌리고 다닌다 open bite mouth breathing Tooth brushing이 弱하다 陰氣 소화액 분비의 감소 Nerve의 작용이 弱하게다 Depression 간사하다 입술 masochism	8個月부터~18個月까지 攻撃的 energy 活用 決斷 精力 독립심이 강하다 파괴, 짜증부림, 화풀이 능률성 Bite force가 强하다 근육의 발달 (muscle hypertonie) 强하다 Gum을 즐겨 씹는다 단단한 음식을 좋아한다 길다 Bruxism Clenching 이를 강하게 닦는다 陽氣 증가 Nerve의 작용의 항진 manic 권위 주의적이다 齒牙 sadism

Periodontal disease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치료는 bite force의 強化로 因하여 공격심의 발산을 도모할 수 있다.

Abnormal habit는 심부의 정신분석요법 (Psychoanalysis)이 필요한 때가 있다.

적개심, 증오감과 같은 공격심은 東洋哲學에 仁 또는 慈悲에 의하여 경감 또는 아주 없어 질수 있으므로 치과의학에서도 仁에 의한 예방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仁의 思想에 입각한 정신요법과 기술(Technic)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것이 仁術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양정강: 처치전후 어린이와의 對話. 齒科界 第3卷 5號, 通卷 第19號, ① 25 1975, 5月.
- 2) 정성덕: “이같이 어린이의 일반적심리.” 齒科界 第3卷 5號. 進卷 19號 ① 26 1975年 5月.
- 3) 한동세: “精神科學” 5版 一潮閣 1972年.
- 4) 李東植: “노이로제의 理解와 治療”, 初版, 一志社, 1974年.
- 5) 李東植: “現代人과 노이로제”, 3版, 東亞文化院, 1976年.

치과기계수리 ××××××××××××××

유닛트 · 제어 · 콤퓨레샤 · 에어터빈 · X-Ray
삭손 · 기타 각종치과기계 · 판매 및 수리

金 順 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전화 (2 2) 0 0 9 6
자택 (6 6) 4 8 0 1